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여파로 장 후반 하락 전환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7일(수) 미국 증시는 5월 소매판매 호조, 마이크론(+2.2%) 등 반도체주에 대한 외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 효과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으나, 이후 “트럼프의 미-이란 휴전 MOU 미 이행 시 공격” 발언,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여파로 장 후반 하락 전환하며 약세로 마감(다우 -1.0%, S&P500 -1.2%, 나스닥 -1.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4%).

케빈 워시 신임 연준의장의 첫 데뷔전이었던 6월 FOMC는 매파적인 동결이었던 것으로 판단. 시장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했지만, 1) 경제 전망, 2) 점도표, 3) 포워드 가이드스, 4) 기자회견 등 곳곳에서 매파적인 색채가 드러났기 때문. 경제 전망상으로 2026년 PCE(기준 2.7% → 3.6%), 근원 PCE(기준 2.7% → 3.3%)를 큰 폭 상향했으며, 성명서 상으로도 추후 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포워드 가이드스를 사실상 폐지한 모습.

또 점도표상 2026년 연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기존 3.4%에서 3.8%로 상향하면서 연내 금리 1회 금리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케빈 워시 본인은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매파적으로 해석된 부분. 기자회견에서도 이전 연준의장과 달리, 5개 TF(커뮤니케이션, 대차대조표, 데이터 활용, 생산과 고용,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등)를 설치해 올 연말까지 운영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언급한 것 이외에는, 별 다른 정책 방향이나 경기 판단을 제시하지 않은 실정.

이 여파로 Fed Watch 상 연내 첫 금리인상 시점이 12월 FOMC로 9월 FOMC로 앞당겨지면서, 지난 6월 초와 유사하게 금리 인상 리스크가 증시 불안 요인으로 재차 떠오르고 있는 상태. 이처럼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가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주었던 만큼, 시장의 초기 반응이 부정적인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음.

여기서 연준이 매파적인 신호를 보낸 본질적인 배경은 에너지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 점을 상기해볼 필요. 미-이란 휴전으로 WTI가 70달러대로 레벨다운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부담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데이터 의존적인 연준으로 하여금 추후 FOMC에서 6월보다 덜 매파적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 점도표 역시 옐런, 파월 전 연준의장 체제에서도 유용성의 부족으로 한계점을 드러낸 전력이 있었다는 점을 되새겨볼 시점. 추후 실제로 폐지 시 초기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연준이나 시장 모두 CPI, 비농업 고용 등 경제지표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추구하고 단서를 찾는 기존의 매뉴얼북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를 종합해보면, 새롭게 바뀌는 연준의 체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7월 FOMC(7월 29일)까지 연준 정책 불확실성을 상존하겠지만, 이번 6월 FOMC는 주식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매파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 더 나아가, 전쟁 리스크 완화로 인플레 부담이 낮아지고 있으며, 차주 마이크론 실적, 7월 중 2분기 실적시즌 등 매크로 불안을 상쇄시킬 수 있는 실적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싣고 갈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반도체주 약세, 6월 FOMC 대기심리 등으로 장 초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후 미-이란 휴전 기대감에 따른 유가 약세 지속, 6월 FOMC 재료 선반영 인식 등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양 시장 주력 업종 중심의 강세를 연출하면서 1%대 상승 마감(코스피 +1.6%, 코스닥 +1.3%).

금일에는 매파적인 6월 FOMC 여파 속 지난 5거래일 연속 급등에 따른 속도 부담 등으로 하락 출발할 전망. 다만, 시장의 쇼크 시나리오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6월 FOMC였으며, 현재 미국 선물시장도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시, 반도체 등 주도주를 중심으로 하방 지지력을 보이면서 장중 낙폭을 만회해 나갈 것으로 판단.

현재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강세(6월 11~17일)를 기록했으며, 누적 상승률은 +14.7%로 역대급 단기 랠리를 시현. 2000년 이후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강세 & 누적 상승률 +14% 이상”의 조건을 충족했던 적은 이번 포함 단 9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이례적인 현상. 아래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닷컴버블(00~02년, 총 4회), 금융위기(08년, 총 2회), 코로나(20년, 1회), 올해 5월 초 8,000pt 돌파 당시(1회), 6월 현재가 그 소수의 사례에 해당.

여기서 과거 8차례 사례의 예후를 분석해보면, 5거래일 뒤 평균 수익률이 -0.5%, 20거래일 뒤 평균 수익률이 +0.3%로 조정 압력을 받았다는 점이 신경 쓰이는 부분. 이는 현시점에서도 조정 압력이 출현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 그러나 닷컴 버블 당시 5거래일 연속 급등장에서는 밸류에이션 과열이, 금융위기와 코로나 당시 5거래일 연속 급등장에서는 외부 충격발 폭락 후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현재는 밸류에이션 매력과 이익 모멘텀이 뒷받침되는 강세장에서 발생한 주가 상승 속도 문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차별화되는 부분.

따라서 매파적이었던 6월 FOMC, 혹은 미-이란 휴전 노이즈를 빌미로 잠재적인 조정 압력에 노출될 수 있겠으나, 속도 조절 수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결국 기존 코스피의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 시, 추후 나타날 수 있는 속도 조절 국면에서 반도체, MLCC 등 주도주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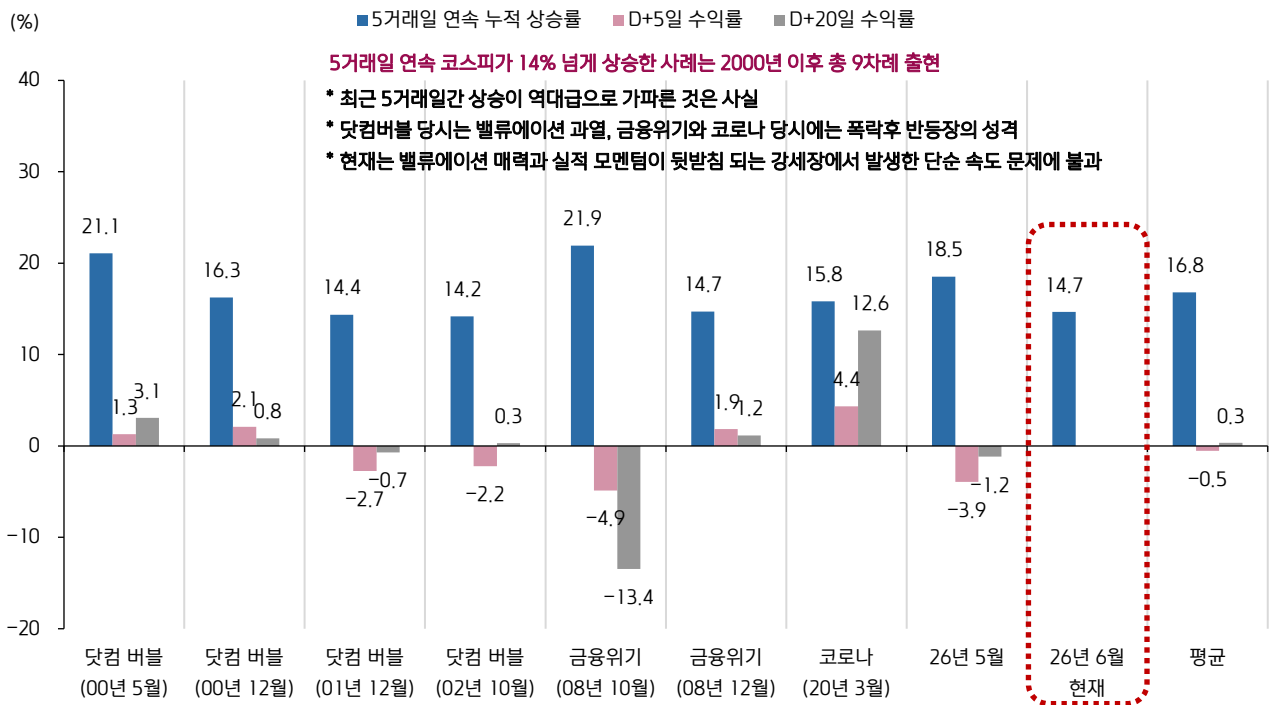
또는 이전보다 순매도 강도가 덜해진 외국인 수급과 연관된 아이디어 측면에서, 6월 이후 12거래일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업종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 화학(12거래일 중 9거래일 순매수), 비철/목재(12거래일 중 9거래일), 철강(12거래일 중 8거래일), 운송(12거래일 중 8거래일), 디스플레이(12거래일 중 8거래일) 등 시클리컬 업종에 이들의 순매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판단.

Fed Watch상 연준의 금리 경로 확률 변화: 6월 FOMC 이후 연내 첫 금리인상 시점이 9월 FOMC로 앞당겨진 모습

CME FEDWATCH TOOL - CONDITIONAL MEETING PROBABILITIES									
MEETING DATE	275-300	300-325	325-350	350-375	375-400	400-425	425-450	450-475	475-500
2026-07-29	0.0%	0.0%	0.0%	70.1%	29.9%	0.0%	0.0%	0.0%	0.0%
2026-09-16	0.0%	0.0%	0.0%	43.7%	45.0%	11.2%	0.0%	0.0%	0.0%
2026-10-28	0.0%	0.0%	11.6%	44.1%	36.0%	8.3%	0.0%	0.0%	0.0%
2026-12-09	0.0%	0.0%	1.4%	15.5%	43.1%	32.7%	7.3%	0.0%	0.0%
2027-01-27	0.0%	0.0%	1.2%	13.3%	38.7%	34.4%	11.3%	1.2%	0.0%
2027-03-17	0.0%	0.0%	0.7%	8.5%	28.6%	36.1%	20.5%	5.2%	0.5%
2027-04-28	0.0%	0.1%	1.5%	10.4%	29.3%	34.6%	19.0%	4.7%	0.4%
2027-06-09	0.0%	0.1%	1.4%	9.7%	27.9%	34.2%	20.2%	5.8%	0.8%
2027-07-28	0.1%	1.1%	8.0%	24.2%	32.9%	23.0%	8.8%	1.8%	0.2%
2027-09-15	0.0%	0.6%	4.5%	16.0%	28.5%	28.1%	16.0%	5.3%	1.0%
2027-10-27	0.1%	1.1%	6.2%	17.8%	28.4%	26.3%	14.4%	4.7%	0.9%
2027-12-08	0.2%	1.7%	7.5%	19.0%	28.2%	25.0%	13.4%	4.3%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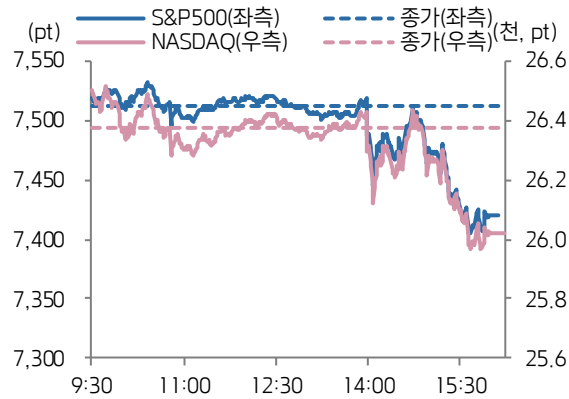
출처: Fed Watch,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00년 이후 코스피가 5거래일 연속 상승 + 누적 수익률 14% 이상 기록한 사례: 이번 6월 11~17일까지 5거래일 연속 누적 14% 상승한 적은 역대 9번째 사례. 과거 사례를 미루어 보아, 향후 속도조절의 여지는 존재. 그러나 닷컴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당시의 5거래일 연속 상승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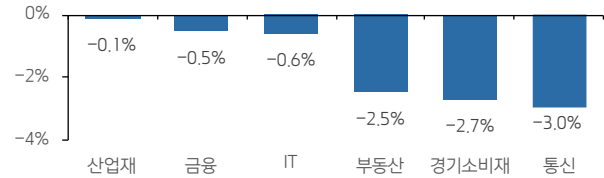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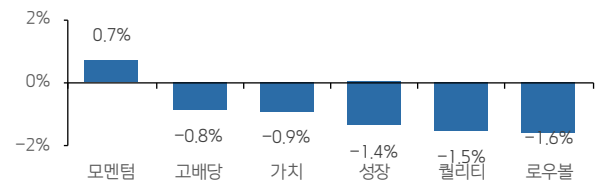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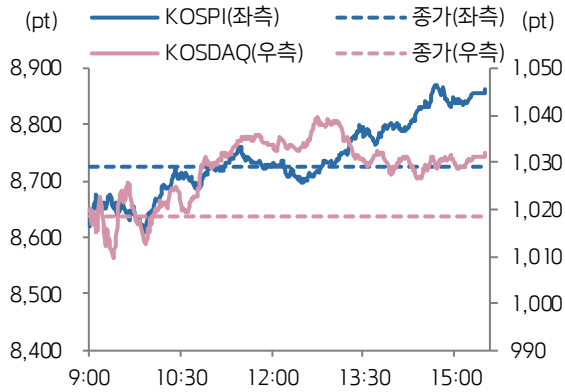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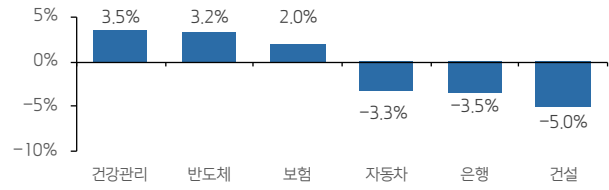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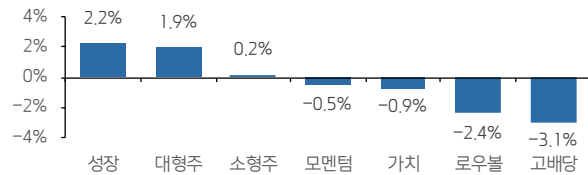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95.95	-1.1%	+8.86%	GM	79.58	-3.55%	-2.14%
마이크로소프트	378.91	-3.79%	-21.65%	일라이릴리	1,112.00	-0.94%	+3.47%
알파벳	363.79	-2.53%	+16.23%	월마트	118.13	-2.4%	+6.03%
메타	567.58	-5.44%	-14.01%	JP모건	333.46	+0.7%	+3.49%
아마존	237.50	-3.46%	+2.89%	엑손모빌	140.74	-0.79%	+16.95%
테슬라	396.38	-2.05%	-11.86%	셰브론	177.58	-1.4%	+16.51%
엔비디아	204.65	-1.33%	+9.73%	제너럴일렉트릭	118.13	-2.4%	+6%
브로드컴	392.90	+4.3%	+13.52%	캐터필러	955.92	+1.11%	+66.87%
AMD	512.48	+1.02%	+139.3%	보잉	225.63	-0.82%	+3.92%
마이크론	1,043.19	+2.2%	+265.51%	넥스트에라	85.73	-0.6%	+6.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8,864.24	+1.58%	+110.34%	USD/KRW	1,515.50	+0.48%	+5.28%	
코스피200	1,416.97	+1.81%	+133.83%	달러 지수	100.38	+0.85%	+2.1%	
코스닥	1,031.96	+1.3%	+11.51%	EUR/USD	1.15	-0.92%	-2.09%	
코스닥150	1,835.62	+1.85%	+18.63%	USD/CNH	6.78	+0.29%	-2.86%	
S&P500	7,420.10	-1.21%	+8.39%	USD/JPY	160.65	+0.14%	+2.51%	
NASDAQ	26,021.66	-1.34%	+11.96%	채권시장		가격	DTD(bp)	YTD(bp)
다우	51,492.55	-0.98%	+7.13%	국고채 3년	3.700	-1.5bp	+74.9bp	
VIX	18.44	+12.37%	+23.34%	국고채 10년	4.062	-4.8bp	+67.7bp	
러셀2000	2,917.98	-0.72%	+17.57%	미국 국채 2년	4.184	+13.3bp	+71.1bp	
필라. 반도체	13,477.07	+1.38%	+90.27%	미국 국채 10년	4.487	+4.8bp	+32bp	
다우 운송	21,534.53	-2.97%	+24.07%	미국 국채 30년	4.931	-1.2bp	+8.8bp	
상해종합	4,108.08	+0.4%	+3.51%	독일 국채 10년	2.927	-0.3bp	+7.2bp	
항생 H	8,144.03	-1.17%	-8.63%	원자재 시장		가격	DTD(%)	YTD(%)
인도 SENSEX	77,155.62	+0.45%	-9.46%	WTI	76.79	+0.97%	+34.62%	
유럽, ETFs		가격	DTD(%)	YTD(%)	브렌트유	79.55	+0.75%	+30.73%
Eurostoxx50	6,300.07	+0.68%	+8.78%	금	4,381.40	+0.62%	-1.33%	
MSCI 전세계 지수	1,121.12	-0.64%	+10.5%	은	70.77	+1.08%	+0.23%	
MSCI DM 지수	4,843.60	-0.39%	+9.33%	구리	649.35	-0.15%	+14.28%	
MSCI EM 지수	1,775.32	+0.64%	+26.41%	BDI	2,670.00	-1.84%	+42.25%	
MSCI 한국 ETF	205.08	-0.4%	+110.94%	옥수수	448.75	+1.41%	-2.55%	
디지털화폐		가격	DTD(%)	YTD(%)	밀	621.25	+2.81%	+13.83%
비트코인	64,369.21	-2.15%	-26.56%	대두	1,149.25	+0.24%	+7.96%	
이더리움	1,745.68	-2.8%	-41.37%	커피	271.90	-0.33%	-15.0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1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